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91-119  
<https://doi.org/10.29212/mh.2020..115.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고려시대 평양[서경]의 위상과 성곽체제

신안식\*

1. 머리말
2. 다경제와 서경의 위상
  - 가. 양경제와 서경
  - 나. 3경제와 서경
3. 서경의 성곽체제
4. 맺음말

## 1. 머리말

평양(平壤)은 668년 고구려의 멸망으로 역사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그 결과 200여 년 동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다. 하지만 평양은 918년(태조 원년) 고려가 건국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고구려역사계승’이라는 고려의 정체성과 더불어 북

---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방세력의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평양의 위상을 더욱 끌어올린 것이 ‘서경(西京)’의 표방이었다.

고려시대에는 개경(開京)·서경·동경(東京)·남경(南京)이 설치되었고, 대몽항쟁기에는 새롭게 강도(江都)가 건설되기도 하였다.<sup>1)</sup> 개경[개주(開州)]과 남경[양주(楊州)]은 고려시대에 새롭게 건설되었던 반면, 서경과 동경[경주(慶州)]은 고구려와 신라의 국도라는 ‘구경(舊京)’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강도[강화도(江華島)]’는 전쟁에 따른 피난처로서 임시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40여 년간 존속되었다.

그런데 ‘경(京)[도(都)]’에는 그 위상을 보여주는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경[도]’에는 최고 권력자의 공간인 궁궐을 중심으로 행정기구·주거지 등 도시의 기반 시설이 구축되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성곽체제를 갖췄다. 특히 방어시설인 성곽체제는 ‘경[도]’의 위상 및 도시 보호라는 중요한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개경의 성곽체제는 궁성(宮城)·황성(皇城)·나성(羅城)의 3성체제로 구축되었다.<sup>2)</sup> 이는 건국하면서 곧바로 3성체제가 구축된 것은 아니고, 국도 개경의 위상을 갖춰가면서 최종적으로 3성체제를 완성하였다.

고구려의 국도 평양에 건설된 서경은 개경과 더불어 ‘양경(兩京)’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고, 태조대(918~943)로부터 현종대

1) 국가의 중심인 ‘京[都]’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심인 도시를 ‘國都[京都]’라 했고, 그 나머지는 副都로서 ‘陪京[陪都]·別京[別都]·下都’ 등으로 불렸다. 이러한 여러 ‘京[都]’을 ‘三京制’(姜玉葉, 「高麗時代の 西京制度」 『國史館論叢』 92, 2000 ; 신안식, 「고려시대의 三京과 國都」 『한국중세사연구』 39, 2014) 혹은 ‘多京制’(金昌賢,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9, 2008)라고 하여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2)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2)」 『역사과학』 2·3, 1980 ; 박용운,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 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2000 ; 김창현, 「고려시대 개경 황성의 구조」 『사학연구』 67, 2002 ;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비평사, 2002 ; 신안식, 「고려 개경의 築城과 도시 영역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59, 2019.

(1009~1031)에 걸쳐 도시 기반 시설 및 다양한 성격의 성곽이 구축되었다.<sup>3)</sup> 신라의 국도[금성(金城)]에도 그에 걸맞은 도시 기반 시설 및 성곽체제가 건설되었을<sup>4)</sup> 것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고려시대의 경주[동경]에도 그런 시설물들이 그대로 존속했거나 새롭게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종대(1046~1083) 이후 새로운 천도지로 부상했던 남경에는 궁궐과 그 부속 시설이 조성되었지만,<sup>5)</sup> 이들 시설들을 보호하는 성곽체제가 건설되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을<sup>6)</sup> 찾아보기 어렵다. 강도는 대몽전쟁의 피난처로 조성되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개경이 구도(舊都)가 되었고, 궁궐과 행정시설 및 이를 둘러싼 성곽체제가<sup>7)</sup> 점차 갖춰졌다. 그리고 ‘경[도]’을 기보(畿輔)하는 경기제(京畿制) 또한 국가의 중심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국도 개경을 보호하는 장치로 적현(赤縣)과 기현(畿

- 
- 3) 李丙燾, 「西京의 在城과 羅城」 『(改訂版)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 김창현, 「고려 서경의 성곽과 궁궐」 『역사와 현실』 41, 2001 ; 신안식, 앞의 논문, 2014.
- 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21년, “築京城 號曰金城”. 여호규, 「國家儀禮를 통해 본 新羅 中代 都城의 空間構造」 『한국의 도성 ; 都城 造營의 傳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3 ; 전덕재,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 209, 2011.
- 5)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2, 문종 22년 12월, “是歲 創新宮于南京” ; 『고려사』 권12, 세가12 숙종2, 숙종 9년 5월, “南京宮闕成”.
- 6)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2, 예종 5년 9월 己卯, “御南明門 闕神騎軍擊毬 賜物有差” ;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2, 예종 5년 9월 壬辰, “御北寧門 闕文武臣僚射 中的者 賜物有差”. 이들 자료에서 보면, 南明門·北寧門 등이 성문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7)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 李丙燾, 『(改訂版)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 金庠基,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 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 윤용혁,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정비」 『역사와 역사교육』 7, 2002 ; 김창현,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 고찰」 『韓國史研究』 127, 2004 ; 윤용혁,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연구」 『國史館論叢』 106, 2005 ; 신안식, 「고려 江都時期 도성 성곽의 축조와 그 성격」 『軍史』 76, 2010. 이런 연구를 통해 강도의 성곽체제가 개경과 마찬가지로 3성체제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縣)의 경기 13현이 설정되었고<sup>8)</sup>, 서경에도 분사직(分司職)과<sup>9)</sup> 경기가 설정되어<sup>10)</sup> 있었다. 하지만 동경과 남경에도 개경·서경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설정되었으리라고 추정할 뿐 그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금까지의 고려시대 경제(京制) 연구는 개경·서경·남경을 중심으로 풍수지리설을 토대로 한 연구,<sup>11)</sup> 국도 개경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보완한 중간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sup>12)</sup>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고려시대의 다경제가 가지는 의의와 개경의 위상을 다루려는 연구가 많았고, 한편으로는 국도 개경이 왕조 내내 천도 논란에 빠졌던 배경을 찾아보려는 연구로도

- 8) 尹武炳, 「所謂「赤縣」에 對하여」 『李丙燾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 邊太燮, 「高麗時代 京畿의 統治制」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82 ; 朴龍雲, 「開京과 開城府」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 안병우, 「경기제도(京畿制度)의 성립과 경기의 위상」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 박종기, 「고려시대 남경지역의 개발과 경기제」 『서울역사박물관 연구논문집』 장간호, 서울역사박물관, 2003 ; 신안식, 「고려시대 '京畿'의 위상과 역할」 『人文科學研究論叢』 25,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 2003 ; 정학수, 「高麗前期 京畿制 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윤경진, 「고려전기 京畿의 편성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 정은정, 『고려 開京·京畿 연구』, 혜안, 2018.
- 9) 安秉佑,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 『典農史論』 7, 2001.
- 10) 윤경진, 「고려시대 西京畿의 형성과 재편-《고려사》 지리지 연혁의 補正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48, 2009.
- 11) 李丙燾, 앞의 책, 1948·1980 ; 崔柄憲, 「高麗時代의 五行의 歷史觀」 『韓國學報』 13, 1978 ; 강옥엽, 「高麗 西京의 風水地理의 考察」 『國史館論叢』 71, 1996 ; 김기덕, 「高麗時代 開京의 風水地理의 考察」 『韓國思想史學』 18, 2001 ; 김창현, 「고려의 운수관과 도읍경영」 『韓國史學報』 15, 2003 ; 김기덕, 「高麗時代 開京과 西京의 風水地理와 遷都論」 『韓國史研究』 127, 2004 ; 김기덕, 「高麗時代 西京의 風水地理의 考察-高麗初期 西京의 政治의 位相과 관련하여」 『史學研究』 73, 2004 ; 김기덕, 「高麗 中·後期 遷都論議와 風水·圖讖說」 『역사민속학』 20, 2005 ; 김기덕, 「韓國中世社會에 있어 風水·圖讖思想의 전개과정-高麗初期에서 朝鮮初期까지 遷都論議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 장지연, 「고려·조선 국도풍수론과 정치이념」, 신구문화사, 2015.
- 12)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129쪽 ; 金潤坤, 「지방의 통치조직」 『한국사』 13, 1993, 184쪽 ; 姜玉葉, 앞의 논문, 2000, 110~111쪽.

이어졌다. 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려초기 천도 논쟁에서 가장 중심적인 쟁점이 서경 천도였고, 정치적인 쟁점이 드러날 때마다 거론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평양[서경]의 위상을 다경제 속에서의 서경 및 성곽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양[서경] 도시구조의 일면을 이해하고, 서경으로의 편재 전후 시기의 평양 도시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 2. 다경제와 서경의 위상

고려는 국도 개경 외에 서경·동경·남경을 설치하여 국도를 보완하였다.<sup>13)</sup> 그런데 평양을 ‘서경’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양경제 하에서 평양이 서경이면, 개경은 ‘동경’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점이 고려초기 양경제 연구에서 의문시되었던 문제였는데, 987년(성종 6)에 경주를 ‘동경’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 가. 양경제와 서경

다음 자료 가-①·②·③을 살펴보면, 고려 건국 이후의 경제(京制)는 ‘개경과 서경’의 양경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① 왕경 개성부는 본래 고구려의 부소갑(扶蘇岬)이다. 신라에서 송악군(松嶽郡)으로 고쳤다. 태조 2년에 송악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여 개

13) 필자는 고려시대 京制에 관한 논문을(앞의 논문, 2014) 발표한 적이 있었고, 본 글에서도 그 논지를 그대로 따랐음을 미리 밝혀둔다.

주(開州)라 하고 궁궐을 창건하였다.<sup>14)</sup>

② 태조 원년에 평양이 황폐하였다고 하여 염주(鹽州)·배주(白州)·황주(黃州)·해주(海州)·봉주(鳳州)의 백성들을 옮겨 그곳을 채우고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삼았다. 얼마 되지 않아 서경이 되었다.<sup>15)</sup>

③ 개경을 고쳐 황도(皇都)라 하고, 서경을 서도(西都)로 삼았다.<sup>16)</sup> 서경을 고쳐 호경(鎬京)으로 삼았다.<sup>17)</sup>

개경은 고려 건국 이듬해인 919년(태조 2) 정월에 철원(鐵圓)에서 송악으로 천도하면서 고려왕조의 국도가 되었다(가-①). 하지만 개경의 명칭이 언제·어떻게 정해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연하지 않다. 개경의 명칭은 960년(광종 11)에 그 명칭이 황도로 개칭될 때 처음으로 발견되고(가-③), 그 이전에는 ‘開州’라는(가-①) 명칭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개주·개경’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지만, 최고 권력자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개경’은 ‘개주 왕경(開州 王京)’에서 비롯되었을<sup>18)</sup>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가-②에서 보면, 918년(태조 원년) 9월에 평양을 대도호부로 삼고<sup>19)</sup> ‘얼마 안 되어[심(尋)]’ 서경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때의 ‘얼마 안 되어’라는 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알 수 없지만, 개경 천도가 태조 2년 정월이었고<sup>20)</sup> 평양을 ‘경(京)’이라는 이름으로 확

14)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왕경개성부, “本高句麗扶蘇岬 新羅改松嶽郡 太祖二年 定都于松嶽之陽 爲開州 創宮闕”.

15)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서경유수관 평양부, 태조 원년, “以平壤荒廢 量徙塩·白·黃·海·鳳諸州民 以實之 爲大都護府 尋爲西京”.

16)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11년, “改開京爲皇都 西京爲西都”.

17) 『고려사』 권3, 세가3, 목종 원년 7월 癸未, “改西京爲鎬京”.

18) 신안식, 앞의 논문, 2014, 265쪽.

1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원년 9월 丙申.

2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2년 정월, “定都于松嶽之陽 創宮闕 置三省·六尙書·官九寺 立市廛 辨坊里 分五部 置六衛”.

인되는 것이 태조 2년 3월 ‘양경(兩京)’이었다.<sup>21)</sup> 이런 점에서 보면, 평양에 서경을 설정한 것은 개경 천도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개경이 위치한 송악군은 898년에 궁예가 후고구려의 국도로 삼은<sup>22)</sup>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평양은 일찍이 고구려의 국도였지만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오랫동안 황폐화되어 있었다(가-②). 고구려 국도 평양을 고려 건국 이후 개경 천도와 동시에 서경으로 삼았던 배경에는 고려의 ‘고구려역사계승의식’과 그 지역의 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이에 따라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는 서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sup>24)</sup> 태조대로부터 현종대에 걸쳐 ‘재성(在城, 922)·나성(羅城, 938)·왕성(王城, 947)·황성(皇城, 1011)’<sup>25)</sup> 등의 성곽체제를 구축하여 개경과 대등한 위상을 갖췄다. 뿐만 아니라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이후 서경으로 천도하려는 의도를<sup>26)</sup> 보여주기까지 하였고,

2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2년 3월, “創法王·王輪等十寺于都內 兩京塔廟 肖像之廢缺者 並令修葺”.

2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총서, “光化 元年 戊午 裔移都松嶽 太祖來見 授精騎大監”.

23)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高麗太祖 興於高句麗之地 降羅滅濟 定都開京 三韓之地 歸于一統”; 신안식, 「고구려 계승, ‘高麗’의 境界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24)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6년 4월, “御內殿 召大臣朴述希 親授訓要曰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

2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5년 11월, “是歲 徙大丞質榮·行波等父兄子弟及諸郡縣良家子弟 以實西京 幸西京 新置官府員吏 始築在城 親定牙善城民居”;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1년 7월, “築西京羅城”;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2년, “春 築西京王城”;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2년 8월, “是月 增修松嶽城 築西京皇城”.

2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15년 5월 甲申, “諭群臣曰 頃完昔西京 徙民實之 冀憑地力 平定三韓 將都於此 …”.

3대 정종(945~949)은 서경 천도를 위해 궁궐 등 시설을 건축하다가 중국에는 실패한<sup>27)</sup> 적도 하였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고려시대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경[양도(兩都)]’은 주로 개경과 서경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였다.<sup>28)</sup> 개경의 영역이었던 송악군은 일찍이 태조 왕건의 세거지(世居地)로서 ‘한 나라의 근본[일국지본(一國之本)]’으로<sup>29)</sup> 인식되었던 반면, 서경은 ‘구도(舊都)’인<sup>30)</sup> 동시에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아국지맥지근본(我國地脈之根本)]’으로<sup>31)</sup> 인식되었다.

그런데 양경인 평양의 별칭을 ‘서경(西京)’이라고 했다면 이와 대비되는 개경의 별칭도 함께 쓰였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수나라 문제(文帝)는 장안(長安)을 국도로 삼았는데, 양제(煬帝)가 등극하면서 장안을 서경이라고 하면서 낙양(洛陽)을 동경이라고 하였다. 당나라도 장안을 국도로 정하면서 서경이라고 했고, 낙양을 배도(陪都)로 삼아 동경이라고 불렀다. 이는 곧 국도의 별칭이 정해지면서 배도의 별칭도 동시에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국도를 중심으로 남경(南京)·북경(北京) 등의 방향을 나타내는 별칭들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경 또한 별칭이 사용되었는데,

27)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4년 3월 丙辰, “王疾篤 召母弟昭內禪 移御帝釋院 龕 在位四年 壽二十七 王性好佛多畏 初 以圖讖 決議移都西京 徵發丁夫 令侍中權直 就營宮闕 勞役不息 又抽開京民戶 以實之 群情不服 怨讟胥興 及薨 役夫聞而喜躍”.

28) 개경과 서경의 양경 이외에 동경과 서경의 ‘東西兩京’(『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1, 문종 즉위년 12 丙午, “... 文武百寮 於興國寺 東西兩京·四都護·八牧 各於所在佛寺行之 以爲恒式”) 혹은 ‘東西二京’(『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즉위년 11월 庚子, “設八關會 ... 又賜酺觀樂 東西二京·東北兩路兵馬使·四都護 ...”; 『고려사』 권9, 세가9, 문종 32년 6월 丁卯, “... 太子率群臣陳賀 東西二京·東北兩界兵馬使 八牧·四都護 ...”) 등도 찾아볼 수 있다.

29) 『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직제, 충선왕 즉위년.

30)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서경유수관 평양부, “本三朝鮮舊都 ...”.

3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6년 4월,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

993년(성종 12)의 ‘상경(上京)’과<sup>32)</sup> 1096년(숙종 원년)의 ‘중경(中京)’<sup>33)</sup>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평양의 별칭은 서경뿐만 아니라 자료가-③에서 보듯이 서도(西都)와 호경(鎬京)이라고도 하였다. 서경과 서도는 국도를 중심으로 한 방향을 나타내는 명칭이었음에 비해, 호경은 평양을 ‘호주(鎬州)’라고<sup>34)</sup>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서경은 개경의 명칭이 ‘개주 왕경(開州 王京)’에서 비롯된 것과 마찬가지로 ‘호주 왕경(鎬州 王京)’을 의미했을 것이다.

양경으로서의 개경과 서경은 국도와 배도의 주종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고려초기 개경과 서경의 위상은 동등한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고려 건국 이후 국왕의 12차례에 걸친 서경 순행(巡幸)과<sup>35)</sup> 3대 정종의 서경 친도를 단행하려던 의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993년(성종 12)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적장 거란의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高麗)라고 하고 평양(平壤)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라

32)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상평의창, 성종 12년 2월, “置常平倉于兩京十二牧 教曰 漢食貨志千乘之國必有千金之價以年豐款行糶糴 民有餘則斂之以輕民不足則散之以重 今依此法行之以千金准時價金一兩直布四十四匹則千金爲布六十四萬匹折米十二萬八千石半之爲米六萬四千石 以五千石委上京京市署糶糴令大府寺司憲臺共管出納餘五萬九千石分西京及州郡倉一十五所西京委分司司憲臺州郡倉委其界官員管之以濟貧弱”.

33) 『고려사절요』 권6, 숙종 원년 8월.

34) 『宋史』 권487, 열전246 외국3 고려, 융흥 2년, “... 平壤爲鎭州 [按長編卷三三九作鎭州] 號西京 西京最盛 總之 ...”. 이 자료에서 평양을 ‘鎬州’ 혹은 ‘鎭州’라고 한 것은 『고려사』 등 우리나라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鎬州’를 ‘鎬京’과 연관하여 유추하였지만, ‘鎭州’는 유추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35) 『고려사절요』 권1, 태조 3년;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4년 10월;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5년;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8년 3월;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9년 12월 癸未;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11년;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12년 4월;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13년 5월 壬辰;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13년 12월 庚寅;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14년 11월 辛亥;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17년 1월 甲辰;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18년 9월 甲午.

고<sup>36)</sup> 하여 평양의 역사성을 거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이 고려초기 개경과 서경의 위상이 동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서경이 개경과 유사할<sup>37)</sup>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 건국초기 양경제에서는 국도 개경과 새로운 천도지로서의 서경이 경쟁적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경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동경[경주]’과 ‘남경[양주]’의 성립이다.

### 나. 3경제와 서경

고려의 ‘3경제(三京制)’는 987년(성종 6) 신라의 국도였던 경주를 ‘동경’으로 설정하면서부터였다.

가-④ (현종) 21년에 다시 동경유수(東京留守)로 고쳤다. 당시 예방(鏡方)이 올린 『삼한회토기(三韓會土記)』에 고려 삼경(高麗 三京)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다시 설치한 것이다.<sup>38)</sup>

⑤ 양주(楊州)를 고쳐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삼고, 근처의 군민(郡民)들을 이주시켜 채웠다.<sup>39)</sup>

⑥ 위위승동정 김위제(金謂禪)가 상서하여 남경(南京)으로 천도하기를 청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도선기(道詵記)』에서 말하기를, ‘고려 땅에는 3경이 있어 송악(松嶽)이 중경(中京)이 되고, 목멧양(木覓壤)이 남경이 되며, 평양이 서경이 된다. 11·12·1·2월에는 중경에 머물고, 3·4·5·6월에는 남경에 머물며, 7·8·9·10월에는 서경에 머문다면,

36)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10월, “... 我國卽高勾麗之舊也 故號高麗 都平壤...”.

37) 『고려도경』 권3, 성읍, 군읍, “惟西京最盛 城市略如王城...”.

38)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동경유수관 경주, “(顯宗)二十一年 復爲東京留守 時鏡方所上 三韓會土記有高麗三京之文 故復置之”.

39) 『고려사절요』 권5, 문종 21년 12월, “改楊州爲南京留守官 徙旁郡民實之”.

36국이 천자를 알현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개국한 이후 160여 년이 되면 목맥양에 도읍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지금이 바로 신경(新京)에 순행하여 머무를 시기입니다. 지금 국가에 중경과 서경은 있으나 남경이 빠졌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삼각산(三角山) 남쪽 목맥 북쪽의 평야에 도성을 건립하시어, 때마다 순행하여 머무르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일관[日者] 문상(文象)도 그에 따라 영합하였다.<sup>40)</sup>

이들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삼한회토기』(가-④)와 『도선기』(가-⑥)는<sup>41)</sup> 고려시대의 지리서로 알려져 있다. 자료 가-④에서는 『삼한회토기』를 인용하여 ‘3경’을 ‘개경·서경·동경’이라고 하였던 반면, 자료 가-⑥에서는 『도선기』를 인용하여 3경을 ‘중경[개경]·남경·서경’이라고 하였다. 이 두 책에서의 차이가 동경과 남경을 3경의 일원으로 각각 지적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려의 ‘3경제’는 양경인 개경과 서경을 중심으로 동경과 남경이 시기에 따라 각각의 위상을 달리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고려 건국 다음 해인 919년(태조 2) 궁예 태봉(泰封)의 국도 철원에서 송악으로 천도하면서 그 지역을 ‘개주(開州)’라고 하였고(가-①), 철원도 ‘동주(東州)’라고<sup>42)</sup> 고쳐 불렀다. 철원을 동주라고 했던 배경을 알려주는 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그 명칭은 ‘동쪽의 주’라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태조 왕건이 궁예에 대한 정변을 통해 즉위

40) 『고려사절요』 권6, 숙종 원년 8월, “衛尉丞同正金謂暉上書 請遷都南京 略曰道誥記云 高麗之地有三京 松嶽爲中京 木覓壤爲南京 平壤爲西京 十一·十二·正·二月住中京 三·四·五·六月住南京 七·八·九·十月住西京 則三十六國朝天 又云開國後百六十餘年 都木覓壤 臣謂今時 正是巡駐新京之期 今國家 有中京·西京 而南京闕焉 伏望 於三角山南木覓北平建立都城 以時巡駐 於是 日者文象 從而和之”.

41) 『道誥記』는 『道誥密記』와 같은 책으로 추정된다.

42)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교주도, 동주, “後弓裔起兵 略取高句麗舊地 自松岳郡來都 修葺宮室 窮極奢侈 國號泰封 及太祖即位 徙都松嶽 改鐵圍 爲東州”.

하였고 그 이듬해에 곧바로 개경[개주]으로 천도하였기 때문에 궁예 태봉의 국도 철원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철원에서 고려왕조의 건국이 이루어진 만큼 철원의 위상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이 철원의 동주라는 명칭이 평양의 ‘서경’이라는 명칭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개경의 이칭은 960년(광종 11)의 ‘황도(皇都)’(가-③)와 993년(성종 12)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경(上京)’<sup>43)</sup> 등이 있었다. ‘황도와 상경’은 동등한 개념으로<sup>44)</sup> 쓰였다. 따라서 성종 6년에 경주를 ‘동경’이라고 명명한 것은 개경의 ‘황도·상경’ 및 평양의 ‘서경·서도’와 대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개경의 ‘개주 왕경’ 및 호경의 ‘호주 왕경’ 등을 참고하면, 동경 또한 ‘동주 왕경(東州 王京)’에서<sup>45)</sup> 비롯되었을 것이다. 경주에 동경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경주의 위상이 격상되었다는 것이고, 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국왕의 순행(巡幸)이었다. 하지만 997년(성종 16) 8월에 동경 순행이 처음으로 이루어진<sup>46)</sup> 이후 다시는 거행되지 못했고, 이후 경주방어사(慶州防禦使)·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 등으로 전락하고(가-④) 남경이 주목받기도 했으나 동경을 폐지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43)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상평의창, 성종 12년 2월, “置常平倉于兩京·十二牧 教曰 “… 委上京京市署糶糴 令大府寺·司憲臺 共管出納 …”.

44) ‘황도’는 중국에서 秦 나라 때 皇帝를 칭하면서 국도 長安을 ‘皇都’라고(『史記』 권6, 진시황본기6) 한 이후 중국 국도의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다. 거란[遼] 또한 국도를 皇都라고 불렀다가 뒤에 ‘上京’이라고도 했다(『遼史』 권37, 지7 지리1 상경도, 상경 임황부, “神冊三年 城之名曰皇都 天顯十三年 更名上京 府曰臨潢”).

45) 신라의 국도 지역이었던 경주가 ‘東州’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宋史』 권487, 열전246 외국3 고려, 용흥 2년, “… 以新羅爲東州樂浪府 號東京 …”).

46)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6년 8월 乙未, “幸東京”.

자료 가-⑤·⑥에 의하면, 1067년(문종 21)과 숙종 원년에 ‘남경’이 거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경을 양주(楊州)에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종대 이후 새롭게 부상한 정치세력의 동향에 주목하거나, 1069년(문종 23) 경기(京畿)의 확장과 관련하여 이해하거나, 풍수도참을 이용하여 왕권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 등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sup>47)</sup> 생산되었다. 앞서서도 살폈듯이 ‘상경[중경]·서경[서도]·동경’이 각각 ‘개경[개주]·평양·경주’의 별칭인 동시에 국도를 중심으로 한 방향의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남경’ 또한 ‘국도 개경의 남쪽’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남경의 설정은 ‘3경제’의 새로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개경[상경]·평양[서경]·경주[동경]’의 3경제에서 ‘개경[중경]·평양[서경]·양주[남경]’의 3경제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자료 가-⑥에서 볼 수 있듯이, 숙종대의 남경 건설은 ‘도성을 건립하였다[건립도성(建立都城)]’이라는 천도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 중경과 서경은 있으나 남경이 빠졌습니다.’라고 하여 고려의 3경제가 ‘개경[중경]·평양[서경]·양주[남경]’로 새롭게 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개경·서경의 경기제(京畿制)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는 ‘남경 기내[南京圻內]’라는<sup>48)</sup>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기(圻)’는 ‘기(畿)’와 같은 의미로서 남경의 ‘기보(畿輔)’ 지역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서경은 고려왕조의 ‘3경제’ 아래에서 동경과 남경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47) 이익주, 「고려시대 남경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도시역사문화』 3, 2005.

48)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3, 예종 12년 8월 丁卯, “王至南京 契丹投化人 散居南京圻內者 奏契丹歌舞雜戲以迎駕 王駐觀之”.

결국 고려왕조의 3경제는 ‘개경과 서경’의 양경제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적 목적에 따라 동경 혹은 남경이 교차하면서 운영되었다. 3경제가 시행된 명확한 배경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면적인 측면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를 고려왕조의 역사계승의식으로서의 ‘삼한(三韓)’ 의식<sup>49)</sup> 혹은 고려시대에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풍수지리설과 연관하여 이해하려 하거나,<sup>50)</sup> 이를 먼저 시행했던 신라의 제도에서 찾아보려는 시각이<sup>51)</sup> 있었다. 이에 더하여 고구려의 국도 평양 및 신라의 국도 금성[경주] 등과 비교하여 역사성의 한계를 지닌 개경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도와 경기 및 5도와 양계로 이루어진 영토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려는 견해도<sup>52)</sup> 있다. 하지만 3경제는 거란 침입이라는 대외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피난처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sup>53)</sup> 반면 개경의 한계성을 보완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평양[서경]이었고, 특히 고려전기 북방민족과의 갈등 과정에서 서경의 지역적·군사적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49) 동경과 남경을 각각 신라와 백제의 역사와 결부시킨 자료도 발견된다(『宋史』 권 487, 열전246 외국3 고려, 융흥 2년, “... 以新羅爲東州樂浪府 號東京 百濟爲金州金馬郡 號南京 平壤爲鎮州 [按長編卷三三九 作鎬州] 號西京 西京最盛 總之 凡三京·四府·八牧·郡百有十八·縣鎮三百九十·洲島三千七百”).

50) 李丙燾, 앞의 책, 1948·1980 ; 崔柄憲, 앞의 논문, 1978 ; 강옥엽, 앞의 논문, 1996 ; 김기덕, 앞의 논문, 2001·2004·2005·2006 ; 장지연, 앞의 책, 2015.

51) 김창현, 앞의 논문, 2008, 82~83쪽.

52) 신안식, 앞의 논문, 2014, 274~275쪽.

53) 예컨대 1010년(현종 원년) 거란의 2차 침략에서는 국왕 현종이 전주로 피난 갔고, 대몽전쟁기에서는 최씨정권의 江華遷都가 단행되었으며, 고려말 紅巾賊의 침략에서는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려의 3경제는 정치·사회적인 목적이 군사적인 목적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다.

### 3. 서경의 성곽체제

고려시대 서경의 성곽체제는 서경의 도시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 윤곽 및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전해지는 자료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 앞서 서경의 위상을 고려의 ‘다경제’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고려전기에는 국도 개경의 위상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려사회의 평양[서경]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① 여러 신하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평양(平壤)은 옛 도읍으로 황폐한 지 비록 오래지만 터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무성해 번인(蕃人)이 그 사이를 사냥하느라 옮겨 다니고 이로 인하여 변경 고을을 침략하니 그 피해가 매우 크다. 마땅히 백성을 이주시켜 그곳을 실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백세(百世)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평양을> 대도호(大都護)로 삼고 사촌 동생[堂弟] 왕식렴(王式廉)과 광평시랑(廣評侍郎) 열평(列評)을 보내어 수비하게 하였다.<sup>54)</sup>

② 이 해에 대승(大丞) 질영(質榮)과 행파(行波) 등의 가족[父兄子弟]과 여러 군현(郡縣)의 양가(良家) 자제를 이주시켜 서경(西京)을 충실하게 하였다.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새로 관부와 관리를 두었으며 비로소 재성(在城)을 쌓았다.<sup>55)</sup>

5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원년 9월 丙申, “諭群臣曰 平壤古都 荒廢雖久 基址尙存 而荆棘滋茂 蕃人遊獵於其間 因而侵掠邊邑 爲害大矣 宜徙民實之 以固藩屏 爲百世之利 遂爲大都護 遣堂弟式廉 廣評侍郎列評守之”.

5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5년, “是歲 徙大丞質榮·行波等父兄子弟 及諸郡縣良家子弟 以實西京 幸西京 新置官府員吏 始築在城”.

③ 여러 신하에게 유지(諭旨)를 내려 말하기를, “근래에 서경의 보수를 완료하고 백성을 옮겨 그곳을 채운 것은 땅의 기운을 빌려 삼한(三韓)을 평정하고 장차 그곳에 도읍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요즈음 민가의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큰바람이 불어 관아가 무너져 버리니 대저 어찌 재변(災變)이 이에 이르렀는가? …”라고 하였다.<sup>56)</sup>

④ 왕이 내전(內殿)에 나아가 대광(大匡) 박술희(朴述希)를 불러 친히 「훈요(訓要)」를 내렸는데 〈여기서〉 이르기를, “... 다섯째, 짐은 삼한(三韓) 산천의 음우(陰佑)에 힘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뿌리가 되고 대업을 만대(萬代)에 전할 땅이다. 마땅히 춘추동 네 계절의 중간 달[四仲月]에 왕은 그곳에 가서 100일이 넘도록 체류함으로써 〈나라의〉 안녕에 이르도록 하라. …”고 하였다.<sup>57)</sup>

⑤ 왕의 성품이 부처를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서, 처음에 도참설(圖讖說)을 따라 도읍(都邑)을 서경으로 옮기기로 결의하고 장정[丁夫]을 징발하여 시중(侍中) 권직(權直)에게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다. 노역(勞役)이 그치지 않고 또 개경의 민호(民戶)를 뽑아서 〈서경을〉 채웠으므로, 많은 백성이 따르지 않고 원망과 비방이 들끓더니 왕이 흥서하였다는 말이 들리자 역부(役夫)들이 기뻐 날뛰었다.<sup>58)</sup>

⑥ 개경을 고쳐 황도(皇都)라 하고, 서경을 서도(西都)라 하였다.<sup>59)</sup>

5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15년 5월 甲申, “諭群臣曰 頃完葺西京 徙民實之 冀憑地力 平定三韓 將都於此 今者 民家雖雜化為雄 大風官舍頽壞 夫何災變至此 …”.

5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6년 4월, “御內殿 召大匡朴述希 親授訓要曰 …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

58)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4년 3월 丙辰, “王性好佛多畏 初以圖讖 決議移都西京 徵發丁夫 令侍中權直 就營宮闕 勞役不息 又抽開京民戶 以實之 群情不服 怨讟胥興 及薨 役夫聞而喜躍”.

59)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11년 3월, “改開京爲皇都 西京爲西都”.

⑦ 오직 서경이 가장 번성하여 성(城)과 시가(市街)가 대략 왕성(王城)과 같았다.<sup>60)</sup>

자료 나-①·②·③·④는 태조대의 서경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나-①에서는 국경을 사이에 둔 북방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평양을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자임한 것은 당시 신라의 역사적 위상 및 백제를 계승한 견훤의 국가 경영과 비교되는 상징성을<sup>61)</sup> 보여주는 것이다. 그 실천 방향으로는 “태조 원년에 평양이 황폐함으로써 염주(鹽州)·배주(白州)·황주(黃州)·해주(海州)·봉주(鳳州) 등 여러 고을의 백성들을 대량으로 이주시켜 채우고”,<sup>62)</sup> 관부와 관리를 두고 성곽을 쌓아 행정적 군사적 정비를 하였다는 자료 나-②·③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③에서 삼한(三韓) 즉 후삼국의 분열을 평정하고 새로운 국가 운영의 도읍지를 서경에 두려는 의도로도 표방되었다.

이런 점들은 곧 자료 나-④에서의 서경이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뿌리가 되고 대업을 만대(萬代)에 전할 땅[아국지맥지근본 대업만대지지(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로서 그 중요성을 후대의 군왕에게까지 계승시키려는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訓要十條)’에도 반영된 배경이었다. 아울러 자료 나-⑤에서의 서경은 태조가 죽은 이후 불안정한 왕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도 이용되었고, 특정 정치세력에 게서 왕권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지기반으로서의<sup>63)</sup> 역할도 하였다. 그 결과 자료 나-⑥·⑦에서는 서경이 개경의 위상과 대등하게 취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인종대 서경세

60) 『高麗圖經』 권3, 성읍, 군읍 “惟西京最盛 盛市略如王城”.

61) 河炫綱, 「高麗時代の 西京」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316쪽.

62)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서경유수관 평양부.

63) 河炫綱, 앞의 논문, 1988, 315~345쪽.

력의 천도운동과<sup>64)</sup> 의종대 ‘호경(鎬京)은 만년토록 쇠하지 않는 땅 [호경만세부쇠지지(鎬京萬世不衰之地)]’으로<sup>65)</sup>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평양[서경]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은 일찍부터 성곽체제가 갖추지게 된 배경이었다.

나-⑧ 평양에 성(城)을 쌓았다.<sup>66)</sup>

⑨ (태조) 5년에 처음으로 서경에 재성(在城)을 쌓았는데, 【재(在)는 우리말[방언(方言)]로 밭고랑[견(畎)]을 말한다.】 무릇 6년 만에 끝났다.<sup>67)</sup>

⑩ 서경에 나성(羅城)을 쌓았다.<sup>68)</sup>

⑪ 서경에 왕성(王城)을 쌓았다.<sup>69)</sup>

⑫ 서경에 황성(皇城)을 쌓았다.<sup>70)</sup>

⑬ 흥국사(興國寺)에서 연등도랑(燃燈道場)을 열었으며, 또 궁성(宮城) 안팎의 거리에는 등불을 켜다.<sup>71)</sup>

64) 河炫綱, 앞의 논문, 1988 ; 李泰鎮, 「金致陽 亂의 性格 — 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 —」 『韓國史研究』 17, 1977 ; 李惠玉, 「高麗初期 西京勢力에 대한 一考察」 『韓國學報』 26, 1982.

65)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2, 의종 22년 3월 戊子, “御觀風殿 下教曰 朕聞 鎬京 萬世不衰之地 後之王者 臨御于此 頒下新教 則國風清明 小民安泰 朕 卽政以來 萬機實繁 未暇巡御 今以日官所奏 來幸此都 將欲革舊鼎新 復興王化 採古聖勸戒之遺訓 及當時救弊之事務 頒布新令”.

6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2년 10월, “城平壤”.

67) 『고려사』 권82, 지36 병2, 성보, “(太祖) 五年 始築西京在城 【在者, 方言畎也】 凡六年而畢”.

68)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1년 7월, “築西京羅城”.

69)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2년, “春 築西京王城”.

70)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2년 8월, “築西京皇城”.

71)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4년 9월 戊寅, “設燃燈道場于興國寺 又點燈于宮城內外街衢”.

자료 나-⑧에서 919년(태조 2)에 평양에 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쌓은 성인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아마도 918년(태조 원년)에 평양이 황폐하여 염주·배주·황주·해주·봉주 등의 백성들을 대량으로 이주시켰다는<sup>72)</sup> 것을 보면 이들의 이주 지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자료 나-⑨에서 보면, 922년(태조 5)에 처음으로 ‘재성(在城)’을 쌓기 시작하여 6년이나 걸려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자료 나-⑧의 성곽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이주민들을 정착시키고, 태조 2년에 평양을 서경으로 설정한 이후 ‘경(京)’으로서의 위상과도 연결되는 조치로 보인다.<sup>73)</sup>

나-⑩에서는 938년(태조 21) 서경에 나성(羅城)을 쌓았다고 하였다. 이는 태조 왕건의 서경으로의 천도를(나-③)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나성을 쌓은 지역과 완성된 시점을 알려주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나성 축조 9년 이후의 자료 나-⑪에서는 947년(정종 2)에 왕성(王城)을 쌓았다고 하였다. 이 왕성도 어떤 성곽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도경』에서 개경의 나성을 왕성이라고 부른 사례가<sup>74)</sup> 있다. 이런 점에서 왕성을 축조하였다는 것은 태조 21년의 나성이(나-⑩) 이때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왕성의 축조

72)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서경유수관 평양부.

73) ‘在城’이 어떤 성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內城’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李丙燾, 「西京의 在城과 羅城」 『(改訂版)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김창현, 「고려 서경의 성곽과 궁궐」 『역사와 현실』 41, 2001). 재성이 건설된 것은 무엇보다 이주민들을 이른 시일 안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 위치가 어디였을까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이른 시일 안에 건설과 안착할 수 있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시설 중에서 이른 시일 안에 복구가 가능한 지역이었음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74) 『고려도경』 권3, 성읍, 국성, “今王城在鴨綠水之東南千餘里”.

는 앞서 나-⑤에서 보았듯이 정종의 서경으로의 천도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나-⑫에서의 황성은 앞서 나-⑥의 자료에서 광종대 개경을 황도라고 했듯이 서경도 그에 따르는 위상을 가졌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1010년(현종 원년)에 거란의 2차 침입을 당하고, 그 이듬해에 곧바로 서경에 황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거란의 공격으로<sup>75)</sup> 인한 성곽의 파괴 부분을 복구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곽의 수축 및 재정비가 있었을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나-⑬에서는 서경의 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1087년(선종 4)에 왕이 서경에 행차했을<sup>76)</sup> 때의 사실이다. 궁성은 궁궐을 둘러싼 성곽으로 장락궁(長樂宮)과 그 정전인 장락전(長樂殿) 등 궁궐 영역의 시설들을<sup>77)</sup> 둘러싼 성곽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서경의 성곽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성(在城)·나성(羅城)·왕성(王城)·황성(皇城)·궁성(宮城)’의 위치·규모·역할 등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성곽을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여 5성 체제였는지 혹은 ‘재성[내성]·외성[나성=왕성]·황성·궁성’으로 이루어진 4성 체제였는지<sup>78)</sup> 등 그 실제적인 구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75)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원년 12월 辛酉, “契丹主攻西京不拔 解圍而東”.

76)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4년 8월 丙午, “幸西京”.

77) 고려초기 서경은 개경과 더불어 양경제의 중심이었고, 국왕의 행차 또한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왕의 공간이 조성되었을 것이고, 장락궁과 장락전 등 궁궐 영역을 형성하였던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6년 3월 甲午, “王宴群臣於長樂宮, 誅金訓·崔質等十九人”;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4년 9월 癸丑, “御長樂殿視事”).

78) 김창현은 고려시기 서경성을 ‘나성·재성·황성(그 안의 궁성 포함)’이라고 하여 개경의 ‘궁성·황성·나성’의 3성 체제와 비슷한 것으로 서술하였다(앞의 논문, 2001, 189~201쪽).

한편 조선시대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평양부(平壤府)의 성곽을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의 2중 체제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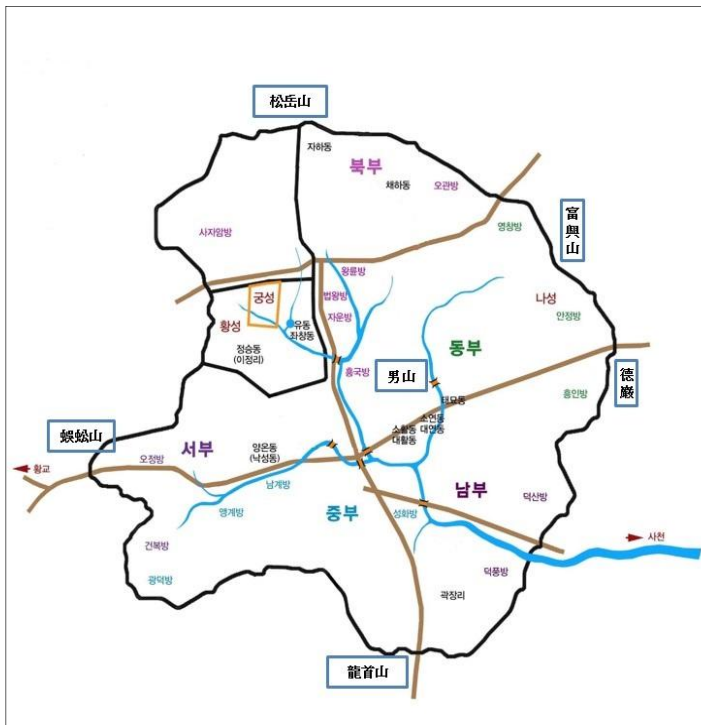
나-⑭ 내성(內城)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4,539尺이고, 높이가 13척이다. 문이 6개인데, 동쪽은 장경(長慶), 서쪽은 보통(普通), 남쪽은 함구(含毬), 북쪽은 칠성(七星), 정동은 대동(大東), 정남은 정양(正陽)이라 이른다. 우리 태종 6년(1406)에 고쳐 쌓았다.】 외성(外城) 【당포(唐浦) 위에 있는데, 돌로 쌓은 것은 둘레가 8,200척이고, 흙으로 쌓은 것은 10,205척이요, 모두 높이가 32척이다. 문이 두 개 있는데, 남쪽을 거피(車避), 서쪽을 다경(多景)이라 하였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 성은 곧 기자(箕子) 때에 쌓은 것이다.”라고 하나 연대가 하도 멀어서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 고려 태조 5년에 처음으로 서도(西都)의 재성(在城)을 쌓아 무릇 6년 만에 끝냈다.”라고 한 것이 아마 바로 이 성인 듯하다. 『주관육익(周官六翼)』에 의하면, “재(在)는 우리말의 견(畷)이다.”라고 하였다.】<sup>79)</sup>

자료 나-⑭는 조선시대의 사실이지만 서경 성곽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한다. 내성은 석축(石築)으로 둘레가 24,539척(尺)[영조척(營造尺) 1척=30.65cm, 약 7.5km] 이고, 높이가 13척[약 4m]이라고 하였다. 이 내성을 1406년(조선 태종 6)에 고쳐 쌓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윤곽이 조선초기까지 남아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성은 석축 둘레가 8,200척[약 2.5km], 토축(土築) 둘레가 10,205척[약 3.1km]이고, 높이가 32척[약 9.8m]이라고 하였다. 이 외성이 고려 태조 5년에 쌓은 재성(在城)일 것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7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평양부 성곽, “內城 【石築 周二萬四千五百三十九尺 高三十三尺 門六 東曰長慶 西曰普通 南曰含毬 北曰七星 正東曰大東 正南曰正陽 我太宗六年改築】 外城 【在唐浦上 石築周八千二百尺 土築一萬二百五尺 並高三十二尺 有二門 南曰車避 西曰多景 今皆頽壞 世傳此城 乃箕子時所築 然年代絕遠 未知是否 高麗太祖五年 始築西都在城 凡六年而畢 疑卽此城 周官六翼 在者放言畷也】”.

외성보다 내성의 둘레가 더 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곽의 높이에서는 외성이 내성보다 2배 이상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성이 위치한 지대보다 내성이 위치한 지대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내성과 외성이 고려시대의 ‘재성·나성·왕성·황성·궁성’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sup>8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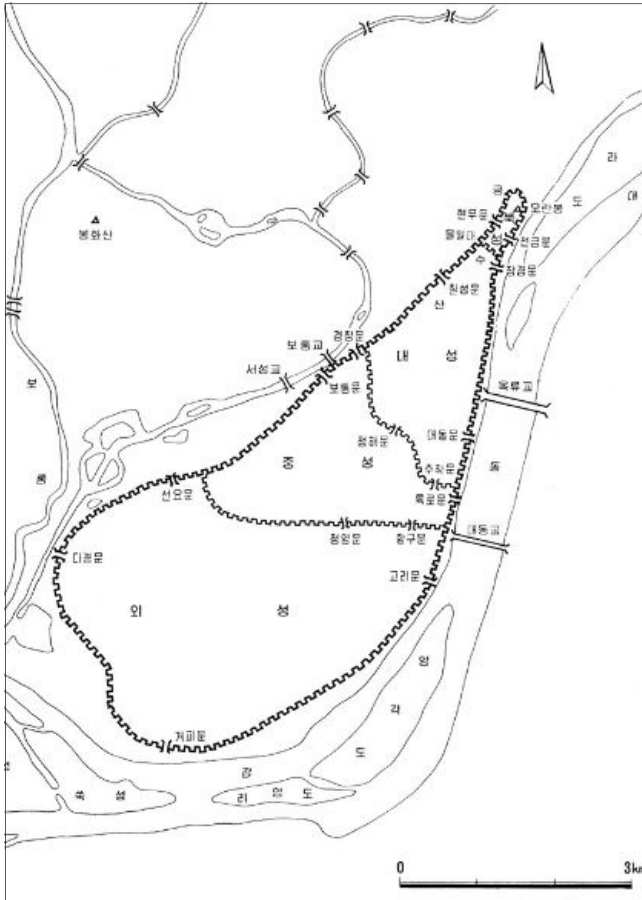
<그림 1> 개경 성곽



\* 출처 : 숙명여자대학교 「韓國史上 開京(開城) 관련 기초자료 정리와 景觀 연구」

80)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평양[서경]의 성곽이 위치한 지역은 고구려의 평양성과 거의 일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평양[서경]의 地形·地勢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사례의 모범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서경 성곽



\* 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평양지역 고구려도성 유적』, 2013, 21쪽

<그림 1>의<sup>81)</sup> 개경 성곽은 ‘궁성 - 황성 - 나성’이 서로 감싸는 형세지만, <그림 2>의 서경의 성곽은 남서쪽이 넓고 북동쪽이 좁은

81) <그림 1>은 한국연구재단 ‘2008년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토대연구)사업’에 선정된 숙명여자대학교 「韓國史上 開京(開城) 관련 기초자료 정리와 景觀 연구」(연구책임자: 박종진)의 결과물 중 지도를 이용하여 제작성하였다.

지형에 따라 각 성곽이 서로 감싸는 형세를 이루기가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재성[내성]·나성[왕성, 외성]·황성[중성]·북성’의 4성 체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sup>82)</sup>

이러한 서경 성곽을 성종대의 김심언(金審言)은 “우리나라의 서경(西京)은 경계가 황해[경진(鯨津)]에 접하고 땅이 북쪽 국경[안새(雁塞)]에 닿아 있으므로, 견고한 성지[금탕(金湯)]를 본떠서 요새를 만들고, 철옹성(鐵瓮城)을 모방하여 성을 쌓았다.”라고<sup>83)</sup> 하여, 서경성을 ‘철옹성’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종 때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던 김부식은 “서경은 북으로는 산과 언덕을 등지고 3면(三面)은 물로 막혔으며, 성이 또 높고 험하여 서둘러 함락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성을 둘러싸고 진영을 펼쳐서 그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여겼다.”라고<sup>84)</sup> 하여, 서경성이 높고 험하다고[성차고험(城且高險)] 하였다. 이런 서경성의 견고함은 1010년(현종 원년)에 거란이 2차 침입을 감행했을 때 서경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를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sup>85)</sup>

결과적으로 보면, 서경의 성곽체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토대로 몇 차례 수축과 증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북방세력의 성장이 커다란 현안이었기 때문에 동서양계의 군사적 중요성이 그만큼 높았다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서경[평양]이 위치하고 있었다. 많은 외침 속에서 서경이 굳건하

82) 4성 체제를 가정한다면, 문제는 궁궐이 있는 宮城의 위치이다. 개경에는皇城이 궁성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성에서도 ‘재성[내성]’ 혹은 ‘황성[중성]’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은 향후 평양성 발굴조사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83) 『고려사』 권93, 열전6 제신, 김심언, “(成宗) 九年七月 上封事 王下敎褒獎曰 … 我國家以西京 境壓鯨津 地連鴉塞 寫金湯而設險 模鐵瓮以築城 …”.

84) 『고려사』 권98, 열전11 제신, 김부식, “富軾以西京 北負山岡 三面阻水 城且高險 未易猝拔 宜環城列營以逼之”.

85)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원년 12월 辛酉, “契丹主攻西京不拔 解圍而東”.

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견고한 성곽체제였을 것이다. 이런 점이 서경의 성곽체제를 고구려의 평양성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평양[서경]을 ‘다경제’에서의 위상과 성곽체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건국초기에는 국도 개경과 후삼국 통일 이후 새로운 국도 천도지로서의 평양[서경]이 ‘양경’으로 공존하였다. 서경은 고구려역사계승의식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북방세력으로부터 국도 개경을 지켜내는 전략적 기지로서의 역할에 적합하였다. 이러한 서경이 개경의 배도(陪都)로서 위상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경주에 ‘동경’을 설치하여 ‘3경(三京)’이 성립하면서부터였지만 동경은 이후 순행의 대상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개경·서경 중심의 ‘양경제’가 지속하였다. 이후 남경이 건설되면서 서경 일변도의 순행에서 남경까지 확대되어 개경·서경·남경의 ‘3경제’로 재정립되었다.

서경이 개경과 상응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성곽체제였다.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서경의 성곽은 ‘재성·나성·왕성·황성·궁성’ 등이었다. 이러한 성곽의 형식 및 규모 등을 알려주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평양[서경]의 성곽이 위치한 지역은 고구려의 평양성과 거의 일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평양[서경]의 지형·지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사례의 모범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서경에는 ‘재성[내성]·나성[왕성, 외

성]·황성[중성]·북성'의 4성 체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20. 3. 28, 심사수정일 : 2020. 5. 13, 게재확정일 : 2020. 5. 18.)

주제어 : 평양, 서경, 개경, 동경, 남경, 평양성, 재성, 나성, 황성, 북성

## <참고문헌>

- 강옥엽, 「高麗 西京의 風水地理的 考察」 『國史館論叢』 71, 1996.
- 姜玉葉, 「高麗時代의 西京制度」 『國史館論叢』 92, 2000.
- 김기덕, 「高麗時代 開京과 西京의 風水地理와 遷都論」 『韓國史研究』 127, 2004.
- 김기덕, 「高麗時代 西京의 風水地理的 考察－高麗初期 西京의 政治的 位相과 관련하여」 『史學研究』 73, 2004.
- 김창현, 「고려 서경의 성곽과 궁궐」 『역사와 현실』 41, 2001.
- 김창현, 「고려의 운수관과 도읍경영」 『韓國史學報』 15, 2003.
-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 신안식, 「고려시대의 三京과 國都」 『한국중세사연구』 39, 2014.
- 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2000.
- 安秉佑,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 『典農史論』 7, 2001.
- 윤경진, 「고려시대 西京畿의 형성과 재편－《고려사》 지리지 연혁의 補正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48, 2009.
- 李丙燾, 「西京의 在城과 羅城」 『(改訂版)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 李泰鎭, 「金致陽 亂의 性格－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 하여－」 『韓國史研究』 17, 1977.
- 李惠玉, 「高麗初期 西京勢力에 대한 一考察」 『韓國學報』 26, 1982.
- 전덕재,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 209, 2011.
-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2)」 『역사과학』 2·3, 1980.
- 崔柄憲, 「高麗時代의 五行的 歷史觀」 『韓國學報』 13, 1978.
- 河炫綱, 「高麗時代의 西京」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Abstract)

## A Study on the Status of Pyeongyang[Seogyeong] and its Fortress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Shin, An-sik

Pyongyang, currently located in North Korea, was removed from historical interest with the fall of Goguryeo in 668, and as a result, it had been almost a ruin for more than 200 years. However, Pyongyang reappeared at the forefront of history as Goryeo dynasty was founded on 918(the first year of King Taejo), and it had served as a advanced base to contain the northern forces with Goryeo's identity of 'succession of Goguryeo history'. What further boosted Pyongyang's status is to claim to advocate 'Seogyeong'.

In the early days of the Goryeo Dynasty, Gaegyeong, which was as an existing capital, and Pyongyang, which had been considered as a new capital relocation sit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coexisted as Two-Capitals. Seogyeong was suitable for its role as a strategic base to protect the capital Gaegyeong from the northern forces. The reason for the change of Seogyeong's status as a city behind of Gaegyeong was started when Donggyeong was established in Gyeongju. But the 'Two-Capital system' centered on Gaegyeong and Seogyeong continued because Donggyeong had gone off from a circumambulation after that. Since then, as Namgyeong had been constructed, a circumambulation of lean-to-one-side the one side Seogyeong had been extended to Namgyeong and re-established as the 'Three-Capital system' of Gaegyeong, Seogyeong and Namgyeong.

It was the fortress system that showed Seogyeong's status corresponding to that of Gaegyeong. The fortress of Seogyeong, which can be verified by materials, were 'Jaeseong, Naseong, Wangseong, Hwangseong and Gungseong'. It is not easy to deduce the cont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materials that can tell the format and size of these fortress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area where the fortress of Pyeongyang[Seogyeong) was located in the period of Goryeo and Joseon Dynasty was almost identical to the castle of Pyeongyang of Goguryeo. It was because it took advantage of the best example to make efficient use of the terrain and geography of Pyongyang[Seogyeong].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eogyeong in the Goryeo Dynasty consisted of the four-fortress system of 'Jaeseong[Naeseong], Naseong[Ouisseong], Hwangseong[Joongseong], and Bukseong'.

Keywords : Pyongyang, Seogyeong, Gaegyeong, Donggyeong, Namgyeong, the castle of Pyeongyang, Jaeseong, Naseong, Hwangseong, Bukseong

